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말라기 · 마태복음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중예수교
장크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말라기 · 마태복음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0월의 열매



올해는 계속된 태풍과 홍수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진한 고난 뒤에 얻게 된 열매들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집과 논밭, 그리고 땅바닥에 나뒹굴고 썩어 가는 열매와 곡식을 행한 눈으로 바라보며 할 말을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황폐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9~15).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고전 3:16),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고전 3:23),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사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커다란 허무함을 분명히 맛보게 되겠지요! 태풍과 집중호우로 맛보아야 하는 허무함과는 비교되지 않는 쓰고 쓴 상실감과 수치를 맛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십시오. 장차 나타날 불에 여러분의 생애가 불타버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2002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마태복음 서론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제일 첫 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예언의 성취와 신약의 출발이라는 대사건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과 옛 예언을 모두 다 이루고 새 언약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구약에서 약속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만큼 구약은 신약을 향해 열려 있으며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도 없다.

1. 저자

본 서 자체는 저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본 서가 마태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였다. 마태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공관복음은 그가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였으며, 따라서 그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힌 소외계층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마태는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 중 특출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태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직업상 가지고 있었던 속기술(速記術)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폐에 대한 빈번한 언급과 회계와 통계에 대한 각별한 가르침은 수치에 밝은 그의 직업적인 기질을 잘 보여준다. 본 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본 서의 직접적인 집필 동기가 그 동안 구약 문화에만 젖어왔던 유대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하여 구약과 예수와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략 A. D. 70년 전후 즉 A. D. 60-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태가 본 서를 기록할 당시 종교적 상황은 유대 회당과 교회의 잦은 충돌로 인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은 거의 확정적 단계에 와 있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의 갈등이 점차로 극복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교회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이 때는 이미 마가 복음이 쓰여진 상태였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은 강조했으나 그분의 말씀, 즉 설교와 교훈은 별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각각 사건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와 초대 교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본 서를 기록하였다. 당시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세 가지의 주요 문제는 ①구약의 율법만 주장하는 유대교와 그 유대교 출신의 새신자가 예수의 복음과 구약의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질문. ②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출신들이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과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자신들의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③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행동 기준이 있었는데, 새 시대를 주장하는 교회의 행동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본 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본 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1차적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실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저는 구약의 인용이 93회로 가장 많은데, 그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약속된 왕국'을 세우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메시아 왕국의 원리와 영역, 그리고 그 확장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본 서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왕이심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그의 정통 왕족인 다윗 가계 출신(1:1)으로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시는 계시완성자이심이 나타나 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

내용분해

1. 개요(1:1-4:11)

- 1) 족보(1:1-16)
- 2) 그리스도의 탄생(1:17-2:23)
- 3) 세례요한의 등장과 세례, 시험(3:1-4:11)

2. 갈릴리에서의 사역(4:12-18:35)

- 1) 예수님의 가르침(산상 보훈)(5-7장)
- 2) 예수님의 사역(8-10장)
- 3) 사람들의 반응(11-18장)

3. 유대에서의 사역(19-28장)

- 1) 왕으로 나타나심(19-25장)
- 2) 십자가 사건(26-27장)
- 3) 영광스러운 부활(28장)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3:5,18; 4:1).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요 12:31),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요 3:18; 5:30; 9:39).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유대 민족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크고 두려운 날' 을 위하여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예수님보다 앞서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눅 3:8). 또한 '크고 두려운 날' 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계 11:3). 그것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던 때에 세례 요한이 그 분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엘리야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들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쳐야 합니다. 또한 신앙 생활 중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입증하려는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밝히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것도 유대인들을 의식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마태복음의 서두(1장)와 결미(28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성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던(사 7:14) 약속(1:23)이 예수님 탄생 사건에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예언 중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위대한 왕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갑니다(2절). 그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왕자도 태어나지 않은 헤롯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미가서를 근거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미 5:2).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의 탄생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었지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빼앗길지 모르는 육신적 생각에 헤롯왕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롬 1:20). 그러나 이 자연현상의 지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을 들고 있던 헤롯왕은 오히려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도 헤롯왕처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실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 멸망의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 가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성경을 통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의 출현도 여러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우선 이사야의 예언(사 40:3)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3절). 그리고 4절에서 세례 요한의 외모를 언급함으로써 엘리야와 비교했습니다(왕하 1:8). 이것은 분명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엘리야와 연관을 지으려는 의도입니다(마 17:10).

그런데 왜 예수님도 아닌 세례 요한의 출현에 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서 나올까요? 만약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곧 주님의 곧게 뻗은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고대의 제왕은 도리가 잘 닦여 있어야만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왕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전에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메시아가 곧 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주님의 길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려고 변명하십니까? 회개의 합당한 열매(8,10절)를 맺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다니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늘 회개하고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하신 자에게 왜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시험을 이기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시험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형의 시험들을 대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인간으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배고픔과 피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처럼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히 4:15). 이 사실은 항상 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지만, 연약한 육체로 계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롬 8:3)’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롬 8:4).

오늘도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핑계 대며 죄를 합리화하면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제목 / ① 모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갈 3:23).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새 율법을 주셔야 했습니다(마 5:17).

구약의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가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롬 3:20)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을 뛰어넘어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 새 율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선포하신 율법대로라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5:18~20).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만족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새벽기도 참석,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율법을 가지고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는 자가 새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완악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찬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찬양이 전체 기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는 감사함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으로 끝나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라, 양식, 죄 용서,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네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태가 6장의 구조로 볼 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입니다(10, 33절).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32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잊으면 우리의 기도는 먼저 땅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한다면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길은 그의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거짓선지자에게서는 거짓 열매가 맺히고 참 선지자에게서는 참 열매가 맺힙니다.

거짓선지자는 말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했고, 귀신도 쫓아 내었고, 권능도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에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체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와 모래 위의 차이는 큰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참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체로운 자가 됩시다.

열매는 순종함으로 맺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17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고, 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는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며, 형제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자입니다.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20절). 십자가의 도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궁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오라 하셔서 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22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쟁기를 잡은 자와 같아서 앞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과 뒤에 있는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과 세상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눅 9:62).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마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와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따르며 이 땅의 고난과 죽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침상 채로 메고, 예수님께 온 무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막 2:1-4). 그 때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무리들에게는 집 앞에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리면서까지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중풍병자의 문제는 그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먼저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장애물은 극복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넘어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적극 ·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태복음 10장은 열두 제자의 파송과 함께 전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2년도 1,000명의 단기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충청교회의 비전위에 매우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고무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10:1).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7, 8).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이 열 두 제자 중에 가롯유다는 나중에 예수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고,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 떠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영적 전쟁터인 전도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승리를 위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뒤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그러나 선교현장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강력한 무기와 함께 보내 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교현장에서 더욱 강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천국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는 몇몇 특수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선지자보다 나은 자, 그리고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이 보다 더 큰이가 없도다”(마 11:9,11)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신들의 의지와 삶을 희생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표현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내어 천국을 확장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오직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이 땅을 침노해서 천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의 길,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 12:43-45)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순간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옛 습관을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강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둘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신랑 예수를 기다리지만 오직 알곡과 슬기로운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꺼려한다면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 삶 속에 계실 때 어찌 악한 귀신 일곱이 다시 들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참 믿음의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마7:24).

기도 제목 / 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일곱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갈망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곧 마음과 삶의 온전한 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과 교회의 모습과 심판 날의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어느 곳에서나 뿌려집니다(1-8절). 하지만 그 씨앗이 놓인 장소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1-8절).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들과(13,15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6절). 주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였습니다(24-30절).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이미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30절). 마지막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는 영원한 분리됩니다(30절 하반절). 하나님은 이제 작은 겨자씨가 거대하게 자라는 것과 우리가 제자로서의 참된 가치를 소유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께서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말씀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큰 주의 다스리심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도우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는 주님이 자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모습을 대하면서 더더욱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은 실제로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 나십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능력의 주인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음란한 헤롯은 의의 빛 같은 요한을 정욕의 제물로 삼습니다(1-11절).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따르는 큰 무리를 붙잡히 여기서 치유와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13,14,19절). 이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19절)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임을 모든 제자들에게와 무리들에게 보이십니다(19절). 주님 홀로 기도하시는(23절) 동안 제자들은 배 위에서 만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고(24절) 이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말라”(27절)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또한 그를 향해 물위로 걸어오던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음을(31절) 말씀하시고 게네사렛 지방 사람들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나음을 입었다’(36절)는 사실을 믿음과 연관시켜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가 썼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모든 패역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에게 집중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15장에는 예수그리스도의 세 가지 형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가나안 여인의 딸을 온전케 하심(28절), ②큰 무리가 데리고 온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치유하심(30절), ③예수께서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32절)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귀신들린 그녀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큰 무리가 데리고 온 많은 종류의 병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32절에서는 더욱 큰 무리인 4,000여명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셔서 채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은 겸손과 인내를 통해서 그녀의 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천여명의 무리들의 문제는 예수께서 직접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해 주셨다는 데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라고 하시면서 모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체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기도 제목 / 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모든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시험이 계속됩니다(1절).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4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6절), 즉 교훈을 삼가라고(12절)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늘 부주의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7, 11절). 이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밝히십니다(16, 17절). 이후 주님이 죽으실 것과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밝히시면서(21절) 주님을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할 것을 가르치십니다(24절). 또한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밝히십니다(27, 28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귀에 좋은 소리만 즐겨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25절).

가장 분명한 걸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자신의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만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 경험을 '그의 크신 위엄, 지극히 큰 영광' (벧후 1:16,17)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 변화산 경험은 피상적인 지식에서 정확한 지식으로 변화하는 은혜였습니다. 이 엄청난 만남을 경험하고 내려온 주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14-18절). 주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믿음'을 제시하십니다(20절). 주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22,23절).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전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셨습니다(27절).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시려는 주의 섭리를 우리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주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그들의 논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에게 자리는 무의미했지만 명예와 위치에 있어서 부패한 상태를 보이고 맙니다. 성도에게는 철저한 겸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1절).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답하십니다(2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입니다(4절). 그러면서 작은 영혼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10절).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십니다(14절).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권징해야 함을(15,16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21-35절)를 통하여 형제를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35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바로 자신이 엄청난 죄의 빚을 아무런 대가없이 모두 탕감 받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십니다(27, 32절).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있지 않으십니까? 직분으로 인하여 큰 자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토박이기 때문에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행동과 모습으로 지극히 연약하고 불품없는 한 영혼이 실족하여 지금 옆자리에 없지는 않으니까? 돌이켜 회개하시고 겸손한 자로 서십시오.

교만은 사단의 무기이지만 겸손은 주님의 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겸손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여전히 주님을 시험하려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항상 분명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외면치 않으셨던(1,2절) 주님에게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 옵니다(3절). 이에 주님은 창 2:24절 말씀을 근거로(5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십니다(6절). 그러나 율법에 우선하였던 이들(7절)에게 주님은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8절)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에게(13절)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며 안수하시고 떠나십니다.(14,15절) 어떤 사람이 영생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로 인하여 떠납니다(16-22절). 이에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하시면서(23절)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26절)고 구원을 정의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을 영광도 말씀하십니다(28,29절).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부패한 심성을 인정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 하늘에서 주어질 영광을 보시면서 날마다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주의 군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천국구원의 오묘한 섭리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16절). 포도원 품꾼 비유는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만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뜻은 해가 뜰 때 새벽6시경을 가리킵니다.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9시, 12시, 오후3시, 오후5시에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놓고 있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해질 때 품삯을 계산하였습니다.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나중 온 사람과 같게 주니까?" 주인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로서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상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보다 늦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은혜 없이 습관적으로 주의 일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 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성전에 입성하시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로 형식과 가식에 가득 찬 유대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해악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하셨습니다(28-46절).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을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이들의 악한 행위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들을 처음과 같이 죽였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함께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상속자임을 알고 유업을 빼앗기 위해 죽였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살펴봅시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기도 제목 / 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성전에서 악한농부의 비유를 들고 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1-14절). 이스라엘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성취하신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이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잔치가 시작되면서 다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들은 거절하였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간절한 초청에 응하지 않고 현실에 눈이 어두워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참석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예복의 모양은 망토 같이 생겨 이것으로 자기의 더러운 몸이나 옷을 가리웁니다. 임금은 잔치자리에서 예복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어야 우리의 더러움이 가려집니다.

지금은 복음의 문이 세계로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세계로 전하여 초청하는 종들이 됩시다. 그리고 잔치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결코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예수그리스도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② 최은아 단기평신도선교사(스리랑카)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천국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들보다 더 외식적인 교인, 교만한 교인을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성전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중요시 여기며, 제단보다 제단위에 있는 예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의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소경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죄는, 이들은 사소한 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열심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을 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의 십일조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 중요한 공평과 자비와 믿음은 버렸습니다. 물론 십일조도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버리면 안됩니다. 다섯 번째 죄는, 안은 더러우면서 밖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사소한 규정은 준수하면서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도덕적인 무절제가 가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죄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온갖 부정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죄는,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과 묘비는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자기들이 그 조상들의 후예임은 잊어버렸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들의 머리위에 모든 순교자의 피의 탄원이 이들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외식하는 죄를 회개하고 속을 깨끗하게 해서 겉까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사 겉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앉으사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의 배교와 분열이 일어나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즉 부도덕이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세상 끝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 비유는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있게 될 상황입니다. 즉, 재림의 그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는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다르면서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강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 살아야한다고 합니다(1-13절). 달란트 비유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하는가? 즉,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사용하라는 교훈입니다(14-30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가? 누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31-46절).

구원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심판대에 서야합니다. 심판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삶에 나타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이 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라고 하시면서 모두 함께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과 떡을 연결시키시고 포도주와 피를 연결시키면서 유월절의 희생 양이 되어 모든 죄인을 구속하는 거룩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지체 의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헌신의 다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십자가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하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부르짖는 형벌의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속죄 의식을 행하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51절), 이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에 따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고전 1:18).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겸비의 십자가입니다(빌2:8).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마10:38).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공생애 기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찍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무덤 속에 묻힌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주님 자신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약속하는 처음 열매입니다.

안식 후 첫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봉했던 돌은 옆으로 굴러가고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뛰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救贖史)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의 기사를 믿음으로 아멘 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셨습니다(1절). 그리고 창조된 우주를 6일에 걸쳐 혼돈상태(Chaos)에서 질서상태(Cosmos)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아가 인간 존재의 기원은 어디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인생은 목적 없이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삶에 회의가 들 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게 될 때 창세기 1장을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삶의 목적과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경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창조사역을 마무리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이 날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재창조를 기념하는 ‘주일’의 개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질 그릇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와는 특별히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두 인격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한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도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과 질서는 조화롭게 유지되어 인간은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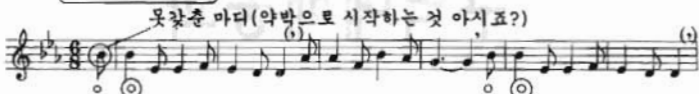
제 1 과

베데스다 못에서

• 찬송 / 397장(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요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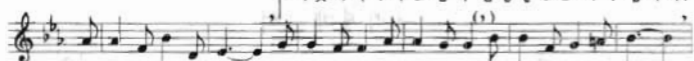
이 찬송은 영적인 구가입니다. 한마디를 두박으로 하여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합창해 찬송해 보십시오.(오히려 템포를 약간 빠르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조금 느리게 ♩ = 70



1.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2. 온 인류 마귀에게 쫓겨 큰 죄에 빠지지 진리로 띠를 띠고서
3.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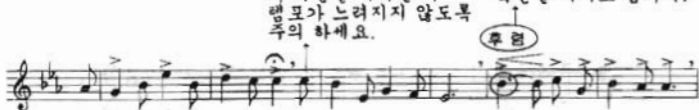
이곳에서부터 조금씩 감정을 고조시켜 갑니다.



다쳐서 열하세 저앞에오는 적군을 다 싸워이겨라
 늘기도드리세 참 믿고의지하면서 겁없이나갈때
 참기쁜일알세 이 어둔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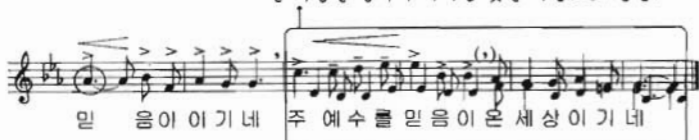
이 부분을 시작할 때
 템포가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합창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 이 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온 세상을 항하여 외치는 듯한 기쁨으로 찬양!



믿 음 이 기 네 주 예수 를 믿 음 이 온 세 상 이 기 네

들어가면서(서론)

38년 동안의 투병 세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지를 뚜렷하게 말해주는 한 가지 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절반이나 되는 38년이란 세월을 병에 시달려 살았다는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면 몰라도, 도중에 건강을 잃어버렸으므로 낫고자 하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낫고자하는 기대만큼 실망도 3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된 것은 그의 병치레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그만치 38년 동안이나 병이 지속되었으니 누가 계속해서 간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벌어지는 병고침의 기적도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직 연못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야 하는 참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려진 그의 삶 속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더라도 오래도록 계속된 괴로운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있다면, 주께서 고쳐주시도록 고백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38년된 병자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 배운다.
- ② 38년된 병자를 통해서 단순한 순종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복음 5장 1절~9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 - 절기

② 2절 - 베데스다

③ 3절~4절 - 큰 무리

④ 5절 - 38년된 병자

⑤ 6절 - 오랜 줄을 아시고

⑥ 7절 - 아무도

⑦ 8절 - 일어나서

⑧ 9절 - 즉시로

2. 다음주일 설교(‘베데스다 못에서’)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베데스다 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원을 읽고, 베데스다 못과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각각 말해 보십시오(병을 치료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

② ‘버려진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는 38년된 병자에 대한 관심이 못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③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음’에 대한 단원을 읽고, 38년 된 병자가 ‘낮고 자 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④ ‘자신의 욕구에 집착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38년 된 병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욕망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⑤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단원을 읽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⑥ '단순한 믿음'에 대한 단원을 읽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알게 된 단순한 믿음과 단순하지 않은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순간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서 내리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보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자신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보다 주의 음성에 귀기울이게 하소서.
- ②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③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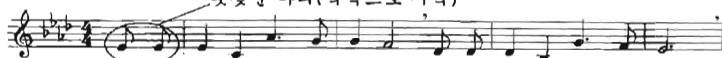
1. 소위 '기독교'의 본질을 보아야 할 때 1.40.35 미치크 ①
 2. 소위 '기독교'의 본질을 보아야 할 때 1.40.35 미치크 ②
 3. 소위 '기독교'의 본질을 보아야 할 때 1.40.35 미치크 ③

제 2 과

네가 어떠하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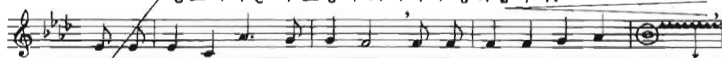
• 찬송 / 519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 • 본문 / 렘 1:4~12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찬송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송해 봅시다.
모듬으로 ♩=92 못갖춘 마디(약박으로 시작)



- | | |
|--------------------|---------------|
| 1. 십 자 가 를 질 수 있 나 | 주 가 물 어 보 실 때 |
| 2. 너 는 기 억 하 고 있 나 | 구 원 받 은 강 도 흘 |
| 3. 주 께 네 흔 일 기 겠 나 | 최 후 승 리 믿 으 면 |
| 4. 이 런 일 다 할 수 있 나 | 주 가 물 어 보 실 때 |

첫째 단과 둘째 단의 가사는 서로 메기고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실 때에 이점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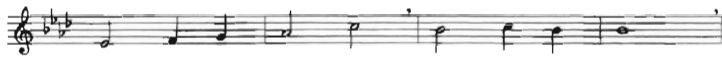
- | | | |
|-----------------|---------------|------------|
| 죽 기 까 지 따 르 오 리 | 저 들 대 답 하 였 다 | 끝까지
가인송 |
| 저 가 회 개 하 였 을 때 | 너 원 허 락 받 았 다 | |
| 걱 정 근 심 어 둔 그 들 | 너 를 돌 러 뉘 을 때 | |
| 용 감 한 자 옛 날 처 럼 | 선 뜻 대 답 하 리 라 | |

후렴의 가사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그 가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렴



우 리 의 심 령 주 의 것 이 니



당 신 의 형 상 만 드 소 서



주 인 도 따 라 살 아 갈 동 안 사



랑 과 충 성 늘 바 치 오 리 다 아 멘

들어가면서(서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다면, 여러분 정말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40년 이상 그는 배교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실하게 선포하면서, 온갖 반대와 구타와 옥고를 다 견뎌냈습니다. 그는 정말 귀중한 예레미야서 52장과 애가 5장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읽게 되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종으로 부르시듯,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복음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방관자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믿는 자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배운대(신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 ② 믿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배운대(신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1장 4절~1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4절~5절 -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② 6절 - 아이(youth)

③ 7절 - 누구에게, 무엇을

④ 8절 - 너와 함께

⑤ 9절~10절 - 내 말을

⑥ 11절~12절 - 살구나무 가지

2. 다음주일 설교(‘네가 어떠하뇨?’)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동일한지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르다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말해 보십시오.

② ‘일의 동기’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③ ‘일의 동기’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말해 보십시오. 만일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④ ‘시간의 주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소모하는 시간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도 말해 보십시오.

- ⑤ '일할 곳'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해 보십시오.

- ⑥ '수고와 영원한 기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아버지에 따라 자녀들의 신분이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그 신분이 결정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인지 아니면 주인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주께서 주인이시며, 나 자신은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 ② 나의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 ③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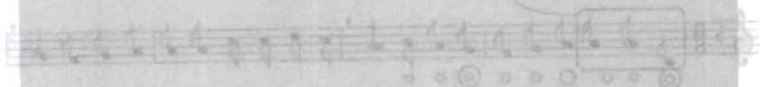
한글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한글로 된 노래

(한글로 된 노래) 15곡의 가사



제 3 과

안디옥에서 생긴 위대한 일

• 찬송 / 258장(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 본문 / 행 11:19~26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물렁이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의 중요한 리듬입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모습을 조금 느리게 ♩ = 60 역동적으로 묘사한 리듬입니다.



1. 물 건너 생명 줄 던 지 어 라 누 가 저 형 제 를 구 원 하 라
2. 너 빨 리 생명 줄 던 지 어 라 형 제 여 너 어 찌 지 체 하 나
3. 너 어 서 생명 줄 던 지 어 라 저 형 제 지 처 서 허 덕 인 다
4. 위 험 한 풍 파 가 쉬 지 나 고 건 너 편 언 덕 에 이 르 리 니



우 리 의 가 까 운 형 제 이 니 이 생 명 줄 누 구 가 던 지 려 나
보 아 라 저 형 제 빠 져 간 다 이 구 조 선 타 고 서 속 히 가 라
시 험 과 근 심 의 거 센 풍 파 저 형 제 를 휩 쓸 어 몰 아 간 다
형 제 여 너 어 찌 지 체 하 나 곧 생 명 줄 던 저 서 구 원 하 라

후 령



생 명 줄 던 저 생 명 줄 던 저 물 속 에 빠 져 간 다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가사의 반복)

리듬 조심!



생 명 줄 던 저 생 명 줄 던 저 지 금 곧 건 지 어 라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매우 특별하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로 복음이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이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행 8:4-5,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속으로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베드로가 맘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한 사건도 등장합니다(고넬료는 유대신앙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절반은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듣고 싶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 본문이 유별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점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뭔가 다른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인 선교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교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다.
- ② 선교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원리를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사도행전 11장19절~2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9절 - 흩어진

② 20절 - 몇 사람이

③ 21절 - 수다한 사람이

④ 22절~24절 - 바나바

⑤ 25절~26절 - 둘이

2. 다음주일 설교('안디옥에서 생긴 위대한 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복음전파의 세 단계'에 대한 단원을 읽고, 복음이 세 단계에 걸쳐서 전파된 사실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오늘의 총천교회의 실정에 맞추어서 적용시켜 보십시오.

 0 10%

 2,441 75%

② '흠어진 자들로 말미암아'에 대한 단원을 읽고, 스데반이 순교하며 맹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③ '선교의 발판'에 대한 단원을 읽고, 안디옥이 세계선교를 위한 발판이 된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몇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몇이 다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방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믿고 주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수다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손, 즉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충현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성도가 모두 선교에 동참하게 하소서.
- ③ 나와 내 가정이 선교의 비전을 지니게 하소서.

제목:

본문:

고대

도요 온다

3-121 발\문법·(5월)10월\수화\자극과(6월)24\출판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3-1. 2000년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고대... (Musical notation and lyrics)

제 4 과

안디옥 교회

• 찬송 / 497장(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본문 / 행 13:1~5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삶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보통으로 ♩. = 92

한마디를 두박으로 하여 기쁘고 흥겹게 찬양합니다.



1. 어 디 든 지 예 수 나 를 이 끌 연 어 디 든 지 예 수 함 께
2. 세 상 친 구 모 두 나 를 떠 나 도 예 수 함 께 가 면 외 롭
3. 어 둔 그 늘 나 를 에 위 쌀 때 에 주 가 함 께 계 심 믿 고



가 려 네 예 수 함 께 아 니 가 면 겁 없 고
없 겠 네 가 는 길 이 위 태 하 고 험 해 도
자 려 네 죽 은 후 에 천 국 에 서 깨 어 나

찬송의 선율이 하행하며 진행하지만
결코 느낌이 처져서는 안됩니다.



항 상 예 수 함 께 가 면 겁 없 네
어 디 든 지 예 수 함 께 가 려 네 어 디를 가 든 지
예 수 함 께 길 이 길 이 살 리 라



겁 낼 것 없 네 어 디 든 지 예 수 함 께 가 려 네

이 찬송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고 흥겨운 감정을 갖고 찬송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심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이지요.

들어가면서(서론)

교회달력에 보면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였고 사도들과 교부들의 신앙에서 이탈되었다고 여김에 따라 로마 교회에 반기를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순수한 복음에 대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무명의 선교사들이 세웠고, 바나바와 사울(바울)이 든든하게 자라도록 땀흘렸던 '안디옥'의 첫 이방인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특히,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현교회도 이들처럼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특정의 사람에게 부여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신신했던 중인들을 부르신 성령께서는 오늘 충현교회에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복음의 중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했는지에 대해 배운다.
- ②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사도행전 13장1절~5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 -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일꾼들)

② 2절 - 성령이(지시)

③ 3절 - 보내니라(순종)

④ 4절 - 보내심(파송)

⑤ 5절 - 하나님의 말씀(사역 내용)

2. 다음주일 설교('안디옥 교회')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안디옥 교회의 증인들'에 대한 단원을 읽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하여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② '복음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에 대한 단원을 읽고, 다양한 국적과 환경 속에서 자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③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에 대한 단원을 읽고, 선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2가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바울)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④ '성령에 의해 파송되는 증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선교는 가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⑤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단원을 읽고, 현재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중인들이 있었고(1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2절),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3절).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이들은 사람의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으며(4절), 그들은 선교지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5절).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선교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공부를 마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가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되는 충현교회의 선교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②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 ③ 자원함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소서.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佐藤和郎先生の書

佐藤和郎先生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著 佐藤和郎先生 著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중현의 만나 · 2002년 10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김정수(1-7일), 김익화(8-13일), 위건량(14-18일),

김황근(19-24일), 박인기(25-31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발행처 / 중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32-8200) [비매점]
